



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워크숍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회장 배병선)는 군민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봉사단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포순이 봉사단'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진안소방서 신나리 교관 등을 초빙해 봉사단 활동 중 마주하게 되는 위급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그룹별로 '봉사단의 위치 및 활동', '봉사단의 어려움' 등을 주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열린 토론과 활동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배병선 회장은 "봉사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비상 상황 시의 대응능력과 봉사단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유총연맹이 우리 지역의 핵심으로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진안의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농협,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현장교육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22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임직원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관내 지역농축협, 농협전북본부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전반 △범인별 역할 정립,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을 위한 준비사항, △기부금 청구수납 등 등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범농협의 역할 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구성으로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지자체와 공동협력으로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과 기부의 농업·농촌 현안중심 투입을 통해 지역소멸 및 농촌붕괴 우려를 완화시키고, 지방재정 보완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무주군, 새마을부녀회 읍·면 핵심지도자 워크숍

무주군 새마을부녀회 읍·면 핵심지도자들이 워크숍을 갖고 지역회합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서 새마을운동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무주군 새마을부녀회는 22일 오전 무주수련원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이순희 부녀회장과 지회장, 도회장,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무주군새마을부녀회 읍·면 핵심지도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감사패 전달과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격려사, 축하 새마을의 날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구자강 도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새마을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생명·평화·공평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데 주역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기득 지회장은 "오늘 제12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실천 의지를 더욱 다지자"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은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을 다짐하면서 새마을운동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이상평 전라북도새마을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지구를 살리는 생활 속 탄소중립'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도, 전국체전 사전경기서 '선전'

전북, 금메달 1개 · 동메달 1개 획득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유도 종목에서 나왔다. 22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신)에 따르면 10월 7~13일까지 울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열린 사전경기 유도 종목에서 전북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등 총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대학부 -48kg급에 출전한 라희원은 월등한 실력을 뽐내며 전북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또 남자 대학부 -60kg급에 나선 두민재도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부터 승전보가 전해오면서 전북 선수단의 사기도 높아졌다. 특히 유도 종목 외에도 펜싱과 배드민턴 경기도 사전 경기로 예정 돼 있어 메달 소식이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북체육회는 오는 28일 오후3시 체육회관 1층 아이파크에서 전국체전 필승을 기원하는 전북 선수단 결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 윤신애 의원, 세계잼버리 성공 기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21일 군산상고에서 개최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윤신애 의원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군산시의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도 함께 해 힘을 보탰다. 윤신애 의원은 "미래 꿈나무인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유도와 분위기 확산 등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청소년 기반시설 구축,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구촌 청소년의 도전과 꿈을 성취하는 무대인 잼버리에 군산시민께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지역에서 개최하는 세계잼버린 대외로 새만금이 널리 알려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혜의 비경을 품고 있는 우리 군산시가 새만금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 서줄 것"을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이어 범도민지원위원회의 홍보 영상과 각각 대표단장들이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진행 상황을 보니 성공이 예상된다. 군산민의 자랑거리 및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협력하는 한편 군산시의회에서도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초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행사는 대표단 행사를 계기로 새만금 조직위원회에서는 170여 개국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잼버리 홍보 및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남원시, 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대표 간담회

남원시는 지난 9월 21일 남원지역자활센터장 및 임직원, 자활기업 4개소 대표와 자활사업 활성화모색을 위한 간담 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자활사업단 운영 시 애로점과 자활기업의 나이갈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남원시 자활기업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보증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탈수급자 4대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자활참여자 심리상담 치료지원 △자활사업단 참여자 기능습득 지원 △자활참여자 역량강화교육 △자격증취득 장려금지원 등이 있다. 한편 방미자 주민복지과장은 2022년 자활기업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복지증진 세부사업을 설명



했다. 또한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활기업의 탄탄한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저소득층 자활의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남원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남원의료원은 지난 21일 남원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방훈련은 직원들의 소방안전과 인식을 향상시키고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 및 환자들의 대피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훈련은 분관 지하층 신장실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되었으며, 화재발생으로 인한 경보전파, 관계기관 신고, 대피훈련, 초기진화, 환자구호, 진화훈련 등 자위소방 출동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박우영 남원의료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인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천적 훈련을 해야 한다"며 "병원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관광재단,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사업 워크숍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9~21일까지 제주도에서 2022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현황 공유 및 단체별 의견수렴의 시간과 공연예술의 자료, 기록과 아카이빙 및 공연예술단체의 재원조성을 위한 특강 등이 이어졌다. 또한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아트마켓'에도 참여해 전국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체간 문화예술 교류 및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사업현황에 대한 공유와 평가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단체간 교류를 통해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교육지원청, 지역 교육발전 정책 연계 강화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 발전 정책 연계 및 상호 협력 강화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동의장인 정현을 익산시장, 김복희 익산교육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2022년 익산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익산교육행정협의회는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내 중 익산시 소유 토지 매각 협조, 익산의 생활교과와 연계한 우리고장 운영 프로그램과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발의된 안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협력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은 "교육의 중요성과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의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교육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익산시의 교육 정책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익산시와 교육지원청이 합심하여 교육 도시 익산이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완산소방서 최규재 소방위 '소방안전봉사상' 수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지난 21일 소방청과 한국 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49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서 방호구조과에서 서 근무하는 최규재 소방위가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74년에 제정된 '소방안전봉사상'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에 헌신·봉사하는 우수 소방관을 발굴·포상해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며, 올해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총 20명이 선정됐다. 최 소방위는 2002년 임용 후 지금까지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소방장비행정,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경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6년 호지동 신축공사장 추락사고 인명구조, 2021년 전주 한옥마을 주택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앞장 서 활약하였으며, 2016년~2022년 전라북도 소방차량 규격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방차량 표준규격서 작성 및 제작 협의, 소방장비 분야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 등 소방장비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최 소방위는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부안서 문화누리 장터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3일 부안 생활문화센터 내 북카페에서 문화누리 문화장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 문화장터는 지역적 여건 고려 등으로 문화 향유가 어려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획한 찾아가는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이날 장터에서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직접 만든 집시와 컵 등 일상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생활도자기 구매와 더불어, 간단한 생활도자기 제작 체험도 가능하다. 일반 신용(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적 여건 고려 등으로 문화 향유가 어려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으며,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각 지역에 직접 찾아가 진행하고자"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r.kr) 또는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